

3장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

중산층에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뿐 아니라 느낌이다

-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위상도 점점 흔들리고 있다. 반면에 신흥공업국 시장에서는 매년 1억명 이상이 새롭게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있고, 이미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들의 수입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.
- 중국 중산층 시장은 기껏해야 향후 10~20년 동안만 구매력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. 인도에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여 2030년에는 인도가 가장 매력적인 신흥공업국 시장이 될 것이다.

새로운 돈, 새로운 중산층

- 미국과 유럽, 일본 중산층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중국과 인도, 그리고 다른 신흥공업국 시장 국가들 중산층의 3배가 넘지만 더 이상 늘지 않는다. 구세대와 신세대 중산층 사이의 세대차이나 소득 차이는 신흥공업국 시장의 중산층 소비자들이 훨씬 강한 야망에 불타오르도록 만든다.

지구는 더 많은 중산층을 감당할 수 있을까?

- 전 세계 중산층의 규모는 2020~2030년에 55%쯤 커질 예정이다. 물과 광물, 연료를 포함한 한정된 천연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려면 창의적인 방법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. 우리에게는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실용화할 전문가와 기업인과 일꾼이 필요하다. 그리고 지금처럼 낭비가 심한 생활 습관부터 바꿔가야 할 것이다.

무너진 사다리

- 유럽과 미국에서 중산층이 붕괴하는 원인은 세계화나 자동화 때문에 좋은 직장을 잃고 있어서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. 젊은 세대가 중산층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. 이전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에 비해 노동 시장의 변화나 저

소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32

- 정말 우려되는 점은 자녀가 생기는 순간 그 가정은 중산층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.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 출생률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. 중산층의 구성과 특성에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. OECD 연구의 결론이다. 중산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지난 30년 동안 평균 연령이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, 베이비 붐 세대 이후 등장한 세대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고 있다.

- 새로운 거주자(이민자)들은 새로운 직업윤리와 기업가 정신을 함께 몰고 왔고, 그 덕분에 텅 비어 있던 거리와 상점들이 사람들과 사업체로 다시 채워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. 생각이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기업들은 비어 있던 자리들을 채울 수 있고, 더 나은 문제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으며,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다.
- 지역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영역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.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은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이 존재하는지,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, 이민자들에게 얼마나 개방적인지 같은 요소들이었다.

기본소득제

- 구세대 중산층들의 일부가 빈곤에 허덕이기 시작하면서 북미와 유럽 대륙은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 소득제를 더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. 기본 소득제는 유럽과 캐나다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이단적이면서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책으로 여긴다.
- 기본소득제가 정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사회복지 제도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. 자동화 때문에 기본 소득제나 그와 비슷한 정책(최저 임금제)을 실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
- 기본 소득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기본 소득제가 생산적이 되고 싶은 열의

를 떨어뜨리고,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자존감과 만족감을 낮출 거라고 염려한다. 나는 일함으로서 느끼는 존엄성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.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본 소득제로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.

- 기본 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.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불안감을 덜 느끼고 좀 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의욕도 되찾았다. 또한 학업이나 재취업에 투자할 여유도 생겼다.
- 알래스카에서는 원유 수입으로 전 주민에게 배당금(2018년 1인당 1600달러)을 지급하였다. 흥미로운 사실은 배당금으로 빈곤율은 줄었는데 불평등은 커졌다는 점이다. 평소 여유 있던 가정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지만, 그렇지 못한 가정은 그냥 써버리기 때문이었다. 비용과 이익 사이의 관계를 떠나 이 정책의 향방은 원유 사업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다.
- 캐나다와 핀란드, 스위스, 미국 등지에서 실시한 시범 정책과 관련 제안서 등을 검토한 두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. “실질적인 추가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빈곤 퇴치 정책을 기본 소득제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매우 퇴행적이다.